

# 시민 문화 교과서

## 내 손 안의 문화예술 상식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시민문화교과서’ 핸드북 발간  
광주 역사·미술·국악 등 장르별 소개  
휴대폰 앱 무료 다운로드 이용

광주는 오래 전부터 ‘예향’이라 불리고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며 2004년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까지 문화와 예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화예술하면 왠지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알쏭달쏭한 미술 용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클래식 연주회에서 박수는 언제 쳐야 하는지 눈치를 살피는 때도 있다. 미술 작품 관람이나 공연 관람 등 문화예술활동은 어쨌든 가까우면 서도 멀리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이 펴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시민문화 교과서’는 광주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길라잡이다. 광주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우리 지역 문화

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또 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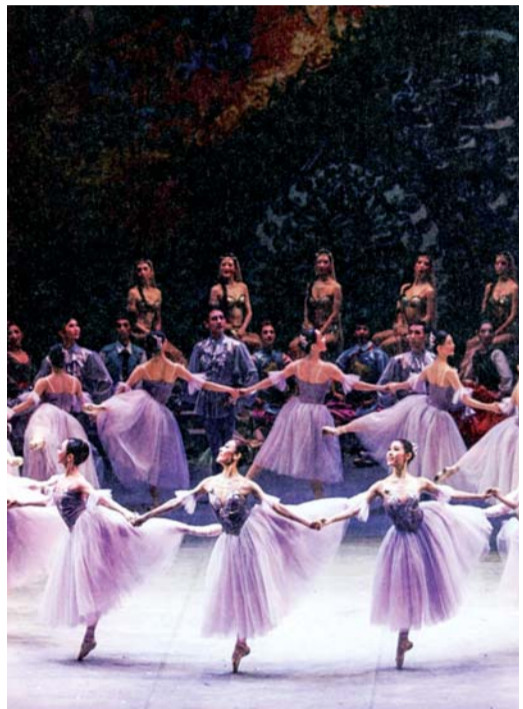
80여페이지 올 컬러로 제작된 ‘시민문화교과서’는 휴대하기 간편한 핸드북으로 제작했고, 인터넷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책에는 광주시민이 꼭 알아야 할 광주의 역사와 유래, 광주가 왜 예향인가를 비롯해 음악, 미술,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음악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간단한 상식을 담았다. 또 공연장과 전시장 관람 에티켓, 세계문화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등에 대한 글도 실렸다. 집필에는 향토사학자 김정호, 조정은 조선대 음악교육과 교수, 정금희 전남대 예술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광주의 유래’ 편에서는 마한시대에서부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근현대 역사와 광주학생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광주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 ‘왜 전라도가 예향일까?’에서는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서예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을 보인 전라도 출신 예인들과 그들의 성과를 통해 전라도 문화의 발자취를 좇는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각 장르별 안내에서는 용어 설명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거나 그림을 감상할 때 도움이 될 간단한 예술문화 상식을 소개하고 있다. 또 ‘세계문화도시 시민들은 어떻게 살까’ 코너에서는 재즈 도시 뉴올리언스, 캘리포니아 항구도시 롱비치의 독서클럽, 뮌헨의 플라마켓 ‘아우어 돌트’, 예술영화관 도시 파리 등 삶 자체가 문화인 현지인들의 일상을 통해 우리 삶도 돌아보도록 했다.

책은 작은 도서관, 지하철 역사 등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와 미술관·박물관 등 문화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 휴대폰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앱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시민문화교과서를 다운로드(무료) 받으면 된다. 책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완해 발간하며 앱은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발레단

## ‘아무노래나 일단 트롯’

광주문화재단 ‘공연나눔’ 20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공연 공간 확보가 어려운 청년예술단체에게 활동무대를 제공하는 ‘공연나눔’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운기)은 공연나눔 사업 첫 번째 무대로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더 블루 이어즈의 ‘아무노래나 일단 트롯’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빛고을시민문화관과 함께하는 공연나눔사업은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광주 청년 예술단체에게 공연장 무료 대관 및 공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첫 번째로 선보이는 ‘아무노래나 일단 트롯’ 공연은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응원의 성격을 지닌다. ‘초혼’, ‘수은등’, ‘첫사랑’, ‘상사화’, ‘막걸리 한잔’, ‘아모르 파타’ 등 친숙한 트로트 곡으로 구성돼 있다.

퓨전 재즈밴드 ‘더 블루 이어즈’(대표 최의목)는 지역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결성됐으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전병민

강은영

온 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색소폰 최의목, 보컬 강은영, 해금 한결후, 대금 박상락, 베이스 전병민, 드럼 이승현, 보컬&피아노 김덕훈이 출연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관람이 제한된다. 입장료는 전석 무료 선착순 25명. 문의 010-9369-919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아특별 개정·문화전당 운영 방식 지역의견 수렴해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시민연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시민연대)는 조성사업 근간이 되는 아특별 개정·제도의 정비 및 문화전당 운영 방식 결정에 지역의견 수렴과 아울러 민주적 개입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18일 ‘이병훈 의원의 아특별 개정안 발의 관련 시민연대 입장’에서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나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 방향 및 내용은 이병훈의원실·문체부·광주시·시민사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구)은 지난 13일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와 조성사업의 법

적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별 개정안 2호)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월에는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아특별 개정안 1호)을 발의한 바 있다.

시민연대는 “아특별 개정안 2호 핵심 내용인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에 대한 우려 사항이 해소돼야 한다”며 “조직 미문화 해소 못지않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 인력 충원·관료주의 형태 해소·적정예산 지원·전당 운영 과정의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시민 주체의 조성사업 추진 체계의 복원 등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호텔 안 갤러리... 부담없이 들르세요

ACC 디자인호텔서 아트장터  
10월13일까지 180여점 전시 판매



‘ACC디자인호텔 기획초대전’이 오는 10월13일까지 호텔 1층에서 열린다.

호텔 커피숍에 아트장터가 펼쳐졌다. 화사한 꽃그림, 분위기 있는 풍경화 등 다채로운 작품이 내걸렸다.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 작품이 보이고, 다양한 공예 작품도 눈길을 끈다. 그림 한 점 걸고 싶었던 이들 이라면 한번쯤 들러볼 만하다.

광주시 동구에 자리한 ACC디자인호텔(금남로 226-11)은 오픈 초창기부터 ACC디자인호텔 갤러리를 운영하며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해왔다. 매달 개인전을 통해 작가를 집중 조명하고, 그룹전 등도 열었다.

광주시 동구(정장 임택), (사)한국미술협회광주시지회, ACC디자인호텔갤러리는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번 프로젝트 ‘코로나 19 미술인을 위한 ACC디자인호텔 기획초대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전시 기회를 잃은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10월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강남구·김제민·김용우·김효상·송필용·이이남·정광주·정철·홍지에

등 총 58명의 작가가 참여해 서양화, 한국화, 조각, 서예, 공예 등 180여점을 전시한다. 출품작은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기준으로 가격대를 책정해 미술애호가들이 좀 더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층에 작품이 전시돼 있으며 앞으로 2층 연회장과 일식당 각각의 룸에서도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한국문학 미래가 될 젊은 작가에 ‘아몬드’ 손원평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우리 문학 최고 유망주는 장편 ‘아몬드’의 작가 손원평(사진)으로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예스 24가 지난 13일까지 진행한 ‘2020 한국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투표에서 드러났다. 손원평은 총투표수 28만5820표 가운데 6만8126표(7.1%)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6만4325표(6.7%)를 획득한 장류진이 올랐으며 3위는 5만949표(6.2%)를 받은 김초엽이 기록했다.



한편 예스24는 오는 25일 오후 6시30분부터 강서NC점에서 젊은 작가 후보로 오른 안미옥, 황인찬 시인과 함께 하는 팟캐스트 ‘책읽아웃’의 공개방송을 진행한다. 공개방송은 예스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